

과달루페 성모 신앙에 대한 인식 연구*

박 중 욱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과달루페 성모 신앙¹⁾이 현대 멕시코의 종교적 특성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질적 종교문화 간의 사회통합이라는 시각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것은 물론이다. 다문화사회인 멕시코 사회의 정체성을 규명하기란 단순하지 않다. 현재까지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성모 신앙의 신태와 현상을 혼종성(hybridity)이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혹은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의 시각만으로 분석하기에는 역사적으로 충돌되는 모순적 요소들이 혼재(混在)한다. 역사적 헤게모니의 주체들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의도와 효과에 대한 해석이 다기(多岐)할 개연성을 비롯하여, 수백 년 동안 사회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Simbiosis)을 통해 상호존재가 가능성을 입증한 ‘결과’로서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헤게모니의 주체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3).

1) 종교적이거나 초월적인 현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심과 그 연구가 과학적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조건은 아니다. 실체에 대한 진위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실체론적(Ontological) 입장에서 과달루페 성모 신앙이 실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또한 Guadalupe의 한국어 음역 표기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과달루페’로 통용되는 표기 방식을 따른다.

이 초기에는 정치적이기보다는 종교적이었으며, 사회통합의 시각에서도 식민주의자와 크리오요 세력이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이후 신앙의 확산기와 독립 운동기에는 메스티소와 원주민의 광범위한 공감대와 적극적 참여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부침(浮沈)을 겪어온 것처럼, 과달루페 성모 신앙은 너무도 오랜 역사에 걸쳐 혼혈문화의 배경과 주체로 자리잡아왔으므로, 다문화주의나 문화상대주의의 논점에서 명확한 해석의 대상이 되기에는 불충분한 복합적 실체가 되었다.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적 요소를 논의하기에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모 신앙이 지니는 사회문화적 의미와 요소는 이질적 문화요소의 결합이라는 근거리 과거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문화담론의 그릇에 담기에는 복합적이고 상호모순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유기적 생명체가 되었다. 몇 가지의 현상에 주목하여, 전체를 일별할 수 없는 ‘스스로 변형-생성하는 구조들’을 이룬 것이다.

과달루페 성모 신앙에 접근하는 담론적 태도는 다양하다. 형태적으로는 문화접변(acculturation)으로서 아스떼카 종교문화적 전통이 가톨릭 종교문화 전통의 형태에 흡수되는 형태로 결합된 정도와 변형되어 수용되는 단계와 형식에 주목할 수 있으며, 문화적 충돌의 측면에서는 강자의 종교문화인 가톨릭의 외형을 견어내면, 내면적으로 보다 강한 생존력으로 지속되고 있는 약자의 종교문화가 차별적 속성을 유지한 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는 문화횡단(Transculturation)의 시각적 접근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조망의 시각에서 문화적 공존을 통한 종교적 혼합은 신크레티즘(Syncretism) 연구 대상으로 중립적 적합성을 지닌다²⁾. 개별현상으로서 과달

-
- 2) 문화접변이 이질적 문화 사이에서 권력과 힘의 논리에 따른 수용방식에 주목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라면, 문화횡단은 이질적 문화 간의 불균등한 관계에서조차 상호작용에 의해 창조되는 결과물과 그 과정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과달루페 성모 신앙을 둘러싼 종교적 이질성의 결합은 오랜 역사를 통해 힘의 권력 균형이 때론 의도적 방식으로, 때론 자연적 방식으로 변형 생성을 거듭함으로써, 이질적 요소들의 종교적 문화혼용의 연구 시각이 중립적 가치 차원에서 오히려 객관성을 유지할 개연성이 크다고 하겠다. 물론, 개별 연구주제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서, 각각의 담론과 연구방법론은 연구문제의 제기와 가설에 따른 장단점에 따라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담론적 특수성으로서 신크레티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 종교 형태 사이의 혼용이라는 측면에서

루페 성모 신앙을 다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도와 예상되는 해석의 방법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이론적 접근이 갖는 어려움과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멕시코 사회에서 과달루페 성모 신앙이 지닌 사회문화적 이미지를 조망할 수 있는 실효적 방식은 무엇일까. 멕시코의 종교 문화적 정체성으로서 과달루페 성모 신앙을 하나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21세기 상황에서 과달루페 성모 신앙에 내재된 다양한 이질적 요소들을 이론적으로 적용하는 작업만큼이나 실증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멕시코인들, 특히 멕시코시티 거주자들³⁾ 과달루페 성모 신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조사할 필요성에서 기획되었다. 따라서 실증적으로 과달루페 성모에 대한 공경이 지닌 요소들을 종교적 삶의 측면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일상 속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인지 설문조사를 통해 객관적 실태에 접근하려는 데에 구체적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과달루페 성모를 공경하는 과정에서 아즈텍의 전통 신앙에 대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멕시코의 국가 정체성과 성모 신앙의 상관관계를 인식하는 정도, 멕시코의 종교문화적 상징으로 수용되는 정도, 성모 발현 전설에 대한 정보 공유와 신뢰의 정도 등의 문제의식에 집중하기 위한 심층면접 조사 설계와 실시에 집중되었다. 신크레티즘의 결과가 메스티소 중심의 문화적 통합과 국가적 정체성에 봉사하는 한편, 원주민 토착문화의 해체와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논의를 검증하는 등의 문제의식은 본 연구의 기본 취지가 아니다. 동시에 토착 원주민 세력이 가톨릭을 수용하는 성과가 대규모 개종이라는 역사적 사건인지, 가톨릭의 외형 아래 전통적 종교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의 종교성을 유지하고 있음으로써 수동적 개종이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 또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주제가 아니다.

연구의 실효적 성과를 위해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결여되기 쉬운 신뢰도의 확보를 위해, 사전 조사로서 내재적 연관검사(Test de Asociación Implícita: 이후 TAI로 표기함)의 ‘멕시코 인

신크레티즘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 조사의 대상 지역을 멕시코 전역으로 할 수 없었으므로, 멕시코시티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중 Razas de México' 항목을 실시하여,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높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우선 기초항목 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로 구분되는데, TAI를 하기 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초항목 조사를 실시하였고, TAI의 결과 편견이 높지 않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조사는 종교적 성향 조사 항목, 과달루페 성모 공경도 조사 항목, 과달루페 성모 전설의 정보 인지 항목, 멕시코의 종교문화적 정체성 관련 항목 등으로 구성되었다⁴⁾. 연구 자료의 조사를 위해 멕시코 현지에서 직접 대면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2월 실시된 조사 내용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⁵⁾

본론 첫째 장에서는 연구문제의 제기와 그 타당성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과 검토 연구를 전개할 것이며, 둘째 장에서는 연구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사전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다룰 것이다.

2. 과달루페 성모 신앙과 신크레티즘

1) 또난친과 성모의 유형적 유사성과 과달루페 성모 신앙의 유래

과달루페 성모 신앙의 역사는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한다. 엑스뜨레마두라(Extremadura) 지방의 과달루페 성모 신앙이 독실했던 콜럼버스는 자신의 두 번째 여행에서 처음 발견하는 땅을 과달루페라 이름붙이기

4) 설문조사 방식과 TAI검사 및 심층면접조사 등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5) 2010년 2월 기초항목조사와 TAI검사 실시 대상자는 모두 103명이었으며, 유효 심층면접설문조사의 실시 숫자는 74건이었다. 2011년에는 현장에서 TAI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효 심층면접설문조사 26건은 표본 조사의 객관성을 검토하기 위한 비교자료로만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분석 대상은 74건의 조사에 한정하기로 하였다. 연구의 기획 의도 가운데 하나는 연차별 변동 요인에 대한 차별성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는데, 2010년 조사군과 2011년 조사군 사이에서 비교대상으로서 차별성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2010년의 조사만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로 결심했고, 1493년 11월 5일 발견한 섬을 과달루페라 명명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배경이 있다. 첫째, 신대륙 발견 당시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했던 성지가 과달루페 수도원⁶⁾이었다. 성모 신앙은 지역에 따른 차등이 없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태도일 수 있겠지만, 과달루페 성모는 당시 성모 신앙의 대표적 상징이었던 것이다. 둘째, 바르톨로메(Bartolomé) 수사 신부가 생생한 기록으로 남긴 것처럼 좌초할 위기에 놓였던 콜럼버스는 과달루페 성모에게 신의 은총을 기원하는 기도를 봉헌했고, 얼마 후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De Cárcel y Disdier, 1995: 291-292). 물론, 멕시코와 스페인에서 공통적으로 기념하는 동일한 과달루페 성모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기념축일의 날짜가 다르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스페인 과달루페 성모가 그대로 멕시코에 이식된 것은 아니었다.

신크레티즘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되는 과달루페 성모 신앙의 유래는 아즈텍 제국이 스페인에 의해 진압된 직후인 153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531년 12월 9일에서 12일 사이 ‘과달루페의 성모’로 불리게 될 여인이 테페약(Tepeyac) 언덕에 나타난 것은 원주민 후안 디에고(Juan Diego)가 56살이 되던 해였다. ‘morena’ 혹은 ‘olive-skinned’라는 메스티조의 상징적 피부색을 띠는 귀부인은 후안 디에고를 선택했고, 1523년에서 1524년 사이에 아내와

6) 스페인 과달루페 성모의 기원은 1326년 무렵 과달루페 언덕에서 소를 지키던 목동 힐(Gil)이 잃어버린 소를 찾아 헤매던 중 발견한 성모의 전설로부터 유래되었다. 목동은 사흘 만에 작은 연못 곁에 죽어있던 소를 발견하였고, 당시의 풍습대로 소의 머리를 잘라내기 위해 소의 가슴에 십자가 모양의 상처를 내었는데, 그 순간 죽었던 소가 벌떡 일어났다는 것이다. 놀란 목동 앞에 성모가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며, 자신이 성모이라는 사실을 밝힌 뒤, 살아난 소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가면 사제들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테니, 그들을 불러 이곳을 파면 조각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그곳에 암자를 건설하도록 전했다고 한다. 이후 암자는 순례지가 되었고, 1337년 암자를 찾은 알폰소 11세(1311.8.13-1350.3.26)는 1340년 수도원 건립을 명령하였으며, 지금까지 과달루페 수도원은 스페인의 중요한 성지가 되고 있다. 과달루페 성모는 엑스프레마두라의 수호성녀이며, 1754년 멕시코의 수호성녀가 되었고, 1910년 교황 피오 10세에 의해 라틴아메리카의 수호성녀로 선포되었다. 스페인에서는 9월 6일 성인축일을 기념하며,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는 8월 24일,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또한친의 기념일이었던 12월 12일 축일로 기념된다.

삼촌과 함께 틀라떼롤코(Tlateloco) 성당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했던 그는 아내와의 사별한 뒤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고향 꾸아우띠틀란(Cuauhtitlán)에서 틀라떼롤코를 오가는 길목이었던 떼삐악에서 성모의 발현을 증거하게 된다(Connors, 1992: 48). 후안 디에고가 아즈텍 사회에서 가난하고 버려진 계층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통 부족사회에서 존경받던 개종 원주민이었다는 사실은 개종의 모범사례라는 시각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토난친(Tonantzin)을 공경하던 장소인 떼삐악에 성당을 지으라는 메시지를 전달받는 책임자는 1528년 까를로스 황제로부터 멕시코 최초의 주교로 임명받아 부임한 후안 데 수마라가(Juan de Zumárraga)였는데, 그는 최초의 멕시코 아우디엔시아의 수장, 누뇨 데 구스만(Nuño de Guzmán)이 행한 원주민 핍박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강경한 인물로 역사에 평가되어 있다. 종교재판관이기도 했던 그는 역설적으로 아즈텍 원주민들의 신앙을 박해했던 역사적 인물이었다. 부유층에 속했던 후안 디에고가 개종을 하고, 원주민의 박해자였던 수마라가가 원주민의 증언을 수용하며, 구축되는 과달루페 성모 전설의 전체 과정은 모순된 요소들의 결합과 이질적 요소들의 융합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아즈텍 신앙과 가톨릭 신앙의 혼종이 군사적 정복처럼 단순한 접촉에 의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원주민들이 가톨릭 신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두 종교 사이에서 발견되는 종교적 유사성과 친밀성은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토난친과 성모 사이의 유사성이 바로 그것이었다. 토난친은 아즈텍인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여신이었는데, 나우아틀어로 ‘우리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지녔으며, 꼬아틀리꾸에(Coatllicue)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다. ‘뱀 치마’라는 뜻의 꼬아틀리꾸에와 동일화되는 토난친은 신들의 어머니였으며, 훗날 태양과 달, 하늘의 별이 되는 401명이나 되는 아들과 한명의 딸을 낳은 그녀는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였다(Morett, 2007: 49). 토난친은 생명을 만들지만, 파괴하기도 하였는데, 지진의 어머니이기도 했다. 토난친은 훌륭한 삶의 표상을 제공하기도 했으며, 아기를 잃었거나 원하는 어머니들의 도움이라는 이미지가 대표적이었다. 모성성이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정신적으로 문화 공동체의 뿌리를 잃은 채 공허할 수밖에 없었던 아즈텍인들에게 ‘신의 어머니’이며, ‘모든 고난 받는 이들의 아픔을 대신하는

고통 중의 어머니’라는 성모의 이미지는 ‘모성성’을 매개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미지를 제공했다.

또난친의 기념일인 12월 12일은 옥수수 알갱이를 공물로 바치는 순례가 행해졌고, 떼삐약 언덕은 또난친을 위한 전통적 의례의 장소였다(Connors, 1992: 6, 48). 떼삐약은 성스러운 장소(lugar sagrado)였던 것이다. 과달루페 성모가 발현한 장소로서의 우연적 의미가 의혹으로 증폭되어 해석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이유이다. ‘모성성’에 덧붙여, 장소의 동일성은 ‘대체적 대상’으로서 과달루페 성모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또난친 신앙과 성모 신앙 사이의 유사성은 ‘과달루페’라는 이름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오해에서 비롯된 의도된 왜곡은 신크레티즘을 부추기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후안 디에고에 의하면, 성모 마리아는 나와뜰(Nahuatl)어로 ‘Coatlaxopeuh’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이는 스페인어 발음방식으로는 ‘quatlachupe’에 유사한 발음이었으며, 따라서 과달루페와 유사한 발음으로 수용될 수 있는 빌미가 된 것이다. 또한 이름이 지니는 의미에서도 유사성이 발견되었는데, 나와뜰어에서 ‘Coa’는 뱀을 뜻하고, ‘tla’는 ‘el/la’로 해석이 가능한 명사이며, ‘xopeuh’는 밟다는 뜻으로서, ‘뱀 밟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가톨릭 전통 신학과 민간 신앙 모두에서 마리아는 [요한 묵시록] 제12장에서 언급되는 ‘뱀을 밟아 이기는 여인’으로 해석이 되어왔기 때문에, 또난친과 성모의 종교적 역할 사이의 긴밀하고 핵심적인 유사성이라 지적되기도 했다. 뱀을 이긴다거나 물리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뱀과 익숙한 이미지로서의 초월적 존재의 의미였던 ‘Coatlaxopeuh’와 뱀을 대항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정복자’의 이미지가 세밀하게 비교되지 않은 채 발음의 유사성이 중요한 매개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또난친 신앙과 과달루페 성모 신앙 사이의 유사성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두 성스러운 존재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장소’와 ‘모성성’, 그리고 ‘이름’과 ‘역할’의 의미는 역사적 실체와 그에 대한 진위에 대한 혼란과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민중 신앙의 형태에 친밀함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아즈텍 종교가 가톨릭에 수용되는 신크레티즘의 가장 큰 배경은 또난친과 성모 마리아 사이의 유사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토착 원주민의 전통 신앙이 가톨릭의 외형에 수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전통적 요소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과달루페 성모 신앙이 ‘대중적 가톨릭’(catolicismo popular)으로서 정통 신앙으로부터 외적이고 이질적 요소를 수용한 채 문화혼용적 형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 또한 두 종교 사이의 유사성에 의한 친밀성이 두 종교 사이의 명확한 구분과 차별이 철저하게 요구되지 않은 채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신크레티즘의 시각에서 본 과달루페 성모 신앙의 의미

신크레티즘은 이질적 종교들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종교 형태를 지칭한다. 신크레티즘은 문화 접촉의 상황에서 상징적 요소들의 적응화에 기초한 종교적 표현의 재작성(再作成)(Olavarria, 1995: 71-72)이기 때문이다. 요아킴 바흐(Joachim Wach)가 지적하듯, 모든 종교는 신크레티즘의 결과이며, 모든 문화 또한 혼용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질적 전통에 속하는 다양한 특징들이 재구성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Lupo, 1996: 12). 그러나, 독립적 의미에서 전통에 대한 개념이 과연 실재할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의 시각에서는 쇼와 스튜어트(Shaw & Stewart)가 지적하듯, 신크레티즘은 이질적 상징과 의미에 의해 ‘순수한’ 전통이 비본질적이거나 오염된 상태를 의미하는 논쟁적 용어일 수밖에 없다(1994: 1). 포스트모던 인류학의 개념에서도 간단치 않은 용어라는 지적, 1994: 2)도 단순한 푸념일수만은 없는 이유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신크레티즘 연구는 가톨릭과 토착종교의 혼성화, 특히 토착신앙이 가톨릭의 외형을 수용하면서, 전통적 신앙요소를 가톨릭의 특징 안에서 유형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에 주목한다(Joppe, 2003: 12). 메스티소 중심의 혼혈문화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메스티소 문화와 토착 원주민 문화의 상관관계가 주목받는 것처럼, 신크레티즘은 가치중립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상위적 가치로 간주될 수 있는 세력 혹은 권력주체에 의해 통합되는 측면의 성격을 포함한다. 따라서, 열등한 세력 혹은 주체의 입장인 토착 원주민들의 가치체계와 입장이 균등하게 반영되는 성격을 지향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크

레티즘은 종교적 다양성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Hartney, 2001: 238).

식민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크레티즘의 사례들이 아즈텍 사회에서 내적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었거나 그들의 종교가 상대적으로 열등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치부되는 역사적 선정주의 경향(Olavarria, 1995: 72)이 있다. 주로 서구 식민주의자들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일부 역사학자들과 종교인들의 견해가 그러한데, 여기에는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간단하게 말해서, 아즈텍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종교를 버리고 가톨릭으로 개종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별다른 보상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즈텍인들은 가톨릭의 신앙과 관련된 요소들이 아즈텍의 종교를 상회할만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가톨릭을 종교적으로 수용한 가장 큰 이유가 두 종교 사이에 외형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이유 이외에는 주요한 원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Madsen, 1957: 173).

외형적 틀에서 유사성이란 인류보편적 원형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개념이므로, 큰 틀에서 가톨릭과 아즈텍 신앙의 유사점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엘리아데가 지적하듯, 모든 종교적 유형의 인간(Homo religiosus)이 추구하는 정신적 구조는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외형적으로는 이질적인 종교라 할지라도 큰 틀에서는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이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두 종교적 형태가 하나로 융합되는 과정이 단순한 정황과 필요성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가치와 신념은 완전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초기 선교 수사들조차 아즈텍인들을 개종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는 편이었기 때문이다(Madsen, 1957: 137). 이러한 시각에서, 신크레티즘은 내적 통일성을 경험하거나 전망하는데 실패한 종교에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바이어드의 견해(Baird, 1991: 151)를 아즈텍 신앙의 소멸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두 이질적 종교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우월한 주체와 그렇지 않은 주체를 가톨릭과 아즈텍 신앙이라고 전제해야 하는 것이라면, 신크레티즘의 시각에

서 아즈텍 신앙의 요소는 비록 가톨릭에 편입되지만, 과정에서 많은 흔적을 남겼다는 데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즈텍 신앙이 겪는 신크레티즘의 형태는 가톨릭에 수용되면서도 흔적을 남긴 요소들을 통해 생존한다. 또한친 신앙이 지닌 다양한 이름의 어머니 신의 모습은 성모의 여러 이름으로 이해되는 신크레티즘을 통해 흡수되지만, 그 흔적은 과달루페 성모 신앙이라는 대중적 가톨릭 신앙에 남아있다. 특히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위로와 사랑의 원천으로서 여성성을 지닌 성모의 개념은 또한친과 과달루페 성모의 결합을 통해 하나의 유형이 된다(Pastor, 1-8).

3) 문제의식으로서 과달루페 성모 신앙의 현주소

(1) 종교적 유사성에 기초한 혼종성

과달루페 성모 신앙이 아즈텍 사회에 수용되는 과정을 단순히 식민주의자들의 강압이라거나 아즈텍인들이 자발적으로 성모에게서 또한친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려는 의도는 마치 혼혈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말린체의 사례만을 강조하는 것과 같이 실체가 없는 상정에 불과한 접근이다. 아즈텍 사회와 스페인 식민주의자들 사이에 힘의 불균형은 논외로 한다 하여도, 두 종교 사이에는 유사성만큼이나 차별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식민지배자의 종교인 가톨릭의 전례와 풍습은 아즈텍 원주민 고유의 종교적 요소와 유사한 내용과 형태를 담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동화작용(asimilación)을 한다. 하지만, 가톨릭은 원주민들에 의해 수용되는 과정에서 유형적으로 유사한 틀의 형식으로 변화를 거치는 혼성과정을 겪게 된다. 구도적으로 보자면, 두 종교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에 기초한 공통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동화작용이 진행되지만, 전체의 틀에서는 두 종교 사이에서 존재하는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식민시대 초기 수많은 선교사들은 원주민 복음화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점이 토착원주민들에게 그들의 종교와 가톨릭을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였음을 고백한다. 둘 사이에는 유사성보다 차별성이 크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톨릭으로 개종한 원주민들의 경우에조차 가톨릭 전례와 아즈텍 원주민의 축제 풍습 사이의 공통점을 연결 짓는 과정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가톨릭 미사의 전례에 몰입하는 원주민들이 평소처럼 종교적 몰입상태에서 드러내는 소란스럽거나 광적인 반응을 대해야 하는 가톨릭 사제들의 어색함과 낯센에 대한 기록들은(Armillas Vicente, 2007: 27-28) 두 종교 사이의 차별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한계에 대한 고백이라 해야 할 것이다. 식민지배자들의 입장에서 차별성에 대한 용인은 종교적 관용(tolerancia)이었으며, 아즈텍인들의 입장에서 차별적 요소들은 전통문화의 정체성과 아즈텍의 역사성에 대한 의식으로 연결되는 종교적 고리(enlace religioso)였다. 인신공양, 다중혼, 근친상간, 황홀체험, 의복, 신체훼손, 순장 등과 같은 요소들은 가톨릭 신앙이 문화적 배경을 이루는 사회에서는 자연스럽지 않은 가치들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두 종교 사이의 통합은 내면적인 갈등과 충돌의 요소들과의 불안한 공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즈텍 신앙과 가톨릭 신앙이 하나의 외형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또난친과 성모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 때문이었다. 설문조사에서 가톨릭과 아즈텍 신앙의 유사성이 과달루페 성모 신앙에서 발견된다고 인식하는 지 확인하려는 의도는 현대 멕시코인들이 역사와 전설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아즈텍 신앙의 요소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사회통합의 기능

멕시코 사회에서 과달루페 성모는 사회통합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강하다. 식민지의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울타리 밖에 있던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을 통합의 기능으로 이끈 것은 ‘어머니’의 이미지를 지닌 성모에 대한 신앙이 독립 운동과 결합되면서부터이다(김세건, 2000: 146). 1810년 이달고(Hidalgo) 신부나 1812년 모렐로스(Morelos)는 과달루페 성모의 이미지를 스페인 식민권력에 맞서기 위해 원주민과 혼혈, 프리오요들이 한데 묶는 상징적 깃발(estandarte)로 활용하였으며, 과달루페 성모는 ‘성장하는 멕시코성(creciente mexicanidad)’을 대변하게 되었다(Tyrakowsky, 1998: 73). 국가통합의 이념으로서 과달루페 성모 신앙의 활용가치는 이처럼 독립전쟁을 계기로 역사의 전면에 두드러지게 된다.

독립 국가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스페인을 모국(母國)이 아닌, 지배국(支配國)으로 규정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개념으로서 ‘멕시코성’을 고취하는 가운데 과달루페 성모의 기능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출발은 식민제도를 공고히 하려는 일련의 작업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지만, 국가정체성 확립기에는 자주 독립의 가치를 위한 매개가 된 것이다. 오늘날, 국민-국가의 개념에서 국가의 상징성으로 확장된 개념으로서 ‘성모’의 사회문화적 역할과 기능은 국가-사회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 과달루페 성모의 이미지는 비록 종교-국가의 분리라는 차원에서 종교적 대상이라 할 수 있지만, 국가-사회의 통합적 시각에서는 ‘온전히 국가적’ 이미지로 해석된다(Eloísa, 1998: 2). 일부 역사학자들은 멕시코의 국가성이란 식민 지배를 거부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원주민의 역사와 가톨릭에 뿌리를 내리는 데, 특히 과달루페 성모 신앙에서 두드러진다고 고찰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에 국가의 선택은 결코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1917년의 헌법은 1857년 반교회주의의 요소들을 승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멕시코인들은 국가의 정체성과 과달루페 성모의 이미지를 한데 묶어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과연, 멕시코인들은 과달루페 성모 신앙인들인가. 본 설문조사에서는 사회통합의 이미지로서 과달루페 성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확인하며, 또한 국가의 상징으로서 과달루페 성모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도록 할 것이다.

(3) 성모 신앙의 병치(yuxtaposición)와 고유성

사회통합의 코드로서 긍정적 의미를 지녀왔던 과달루페 성모의 역할과 기능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도 재현된다. 이는 성모 신앙이 사회통합을 위한 매개로 적극 활용되었음을 밝혀주는 대목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성모 신앙이 열렬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원주민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신크레티즘으로서 성모 신앙 현상의 병치가 그것인데, 이는 우연적 요소로 보기에는 해석의 개연성에 있어서 불명확한 요소들이 산재한 대상이다. 원주민들의 가톨릭으로의 개종은 자신들의 종교체계에 다른 믿음과 체계를 적극

적으로 병치하는 행위이다. 국가와 사회를 통합하는 이미지로서 과달루페 성모 신앙과 같은 유형의 병치 사례는 산 호세에의 성모, 성 삼위일체 성모, 모든 성인의 성모 신앙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Olavarria, 1995: 72). 물론, 본 연구는 성모 신앙의 병치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대부분의 멕시코인들에게 다른 지역의 성모 신앙은 특별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연구문제로서 과달루페 성모에 대한 신앙이 멕시코 고유의 신앙으로서 여타 지역의 성모에 대한 신앙과 비교 우위에 있는 개념인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려는 데에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중요한 목적을 과달루페 성모 신앙의 유래와 형성과 같은 역사적 궤적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 작업에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신크레티즘의 형성 과정과 정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아스텍 신앙이 전면적으로 가톨릭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흔적과 의미를 남기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아니다. 다만, 현대 멕시코인들의 일상에서 과달루페 성모 신앙이 과연 어느 정도로 인식되고 있느냐 하는 실증적 주제가 본 연구의 대상이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설문조사를 통해 접근하려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몇 가지의 연구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과달루페 성모 신앙의 유래와 형성 과정에 대해서 신크레티즘과 관련된 인식의 유무여부, 과달루페 성모 신앙이 지닌 사회통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의 정도, 국가-교회의 역학관계에 기초하여 과달루페 성모 신앙이 멕시코의 종교문화적 통일성을 반영하고 상징하는 것인지 인식 여부, 아메리카 전역에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된 성모 신앙의 병치(yuxtaposición)와 관련하여 여타 성모 신앙과의 비교하여 과달루페 성모 신앙을 고유성과 특수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 등이다.

3. 설문조사의 결과와 해석

1) 설문조사

(1) TAI(Test de Asociación Implícita) 검사

과달루페 성모 신앙과 관련된 인식도를 조사하는 연구는 실증적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과달루페 성모 신앙에 대한 현대 멕시코인들의 인식을 설문형식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표본집단의 지닌 대표성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조사 TAI를 실시하고,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의 객관타당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사전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으며, 제한적 대상집단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문에 대한 피설문자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실효적 접근 방법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TAI 검사는 사물의 관계나 가치에 대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편견의 정도에 대한 무의식적인 정도를 판별하는 검사법으로서, TAI는 국내에서는 ‘암묵적 연합검사’ 혹은 ‘내재적 연관검사’라는 용어로 통용된다. 자신의 의식적 태도와 암묵적(무의식을 포함한) 태도가 차이를 보이는 정도에 따라서 의식적 판단과 무의식적 판단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로서 매우 유용한 검사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설문면접조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증 장치로 활용되었으며, 설문대상자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는 편견의 경중(敬重) 정도에 대한 검토를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인습에 대한 편견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일부 설문대상자들을 제외하기 위한 목적에서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

현대 멕시코 사회에서 실증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과달루페 성모 신앙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TAI의 검사 항목들⁷⁾ 가운데에서 ‘멕시코의 인종’ 항목을 선택하였다. 멕시코인들에게 과달루페 성모의 상징이 인종적 특성으로서의 피부색과 연상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TAI와 기초설문조

7) 멕시코의 경우 TAI 검사는 멕시코의 인종(Razas en México), 인종(Raza), 체중(Peso), 국가(Países), 성별인식(Género), 연령(Edad), 선거(Elección), 성적 기호(Sexualidad), 피부색(Tono de piel) 등의 항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https://implicit.harvard.edu/implicit/mexico/> 사이트의 내용을 활용하였으며, ‘멕시코의 인종 Razas de México’ 항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과달루페 성모의 외형적 이미지가 진실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종적 특수성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사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103명이었지만, 시간의 제약 때문이었거나, 실수가 많아서 TAI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대상자 17명과 TAI 결과 편견이 “강한” 소유자로 분류되는 11명과 예전에 TAI 검사를 경험했던⁸⁾ 1명을 제외한 74명을 대상으로 추가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TAI 검사 시간은 5분 내외였으며, 기초설문조사를 포함하여 평균 소요시간은 10분가량이었다.

TAI 검사의 ‘멕시코의 인종’ 항목 경우에는 좌우에 대칭적인 개념어들을 사진과 함께 병렬적으로 보여주면서, 내면적 편견의 성향이 판단력을 얼마나 좌우하는 지에 대한 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좋은 것(Buenas)’와 ‘나쁜 것(Malas)’의 어휘쌍과 더불어 ‘Maravilloso, Mejor, Excelente, Fenomenal’ 등의 긍정적 어휘와 ‘Malas palabras, Terrible, Horrible, Peor, Nefasto’ 등의 부정적 어휘를 멕시코의 대표적인 인종을 반영하는 인종의 사진 이미지들과 교차하면서 확인하는 검사적 접근 방법이다⁹⁾. 4분야의 어휘들을 사진 자료와 어휘들을 연상하여 내재된 속성에 대한 인식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의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내재적 혹은 암묵적 편견의 정도를 지표로 표출하게 된다. 자동적 선호 평가의 결과는 “약간”, “다소”, “강한”, 또는 “경미하거나 전혀 없음”의 네 단계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평가 집단 가운데, “강한”의 경우에는 인종적 인식에 있어서 편견이 많은 집단일 개연성이 크다고 판명이 된 것이므로, 심층면접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멕시코 인종’ 항목의 TAI 결과는 <표. 1>과 같다.

8) TAI 검사는 이전의 검사 경험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검사 방식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판단하는 수준에서) 심리적인 조작의 유희과 그 반작용 등으로 본인의 일상적 상태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개연성에 노출된 것은 분명하므로, 전체 결과에서는 제외하였다.

9) ‘멕시코 인종’ 항목에서 주로 활용하는 사진 이미지 자료들은 멕시코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인종을 백인, 혼혈, 원주민 등으로 구분하여, 집단에 따른 상대적 편견의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항목이다. 하지만, ‘피부색’ 항목과 무관한데, 이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같이 주로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발견되는 편견과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이다.

〈표 1〉

평가	인원수
총대상자	103
경미하거나 전혀 없음	31
약간	24
다소	19
강함	-11
포기	-17
무효	-1
유효인원수	74

(2) 기초조사

설문조사에 응한 유효 기초조사 대상자들은 모두 103명이었으며, 조사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피설문자들의 기본 사항에 대한 항목들과 종교 관련 항목들이 그들이다. 기본 사항에 있어서 연령별로는 20대(36명) > 30대(31명) > 40대(18명) > 50대 이상(10명) > 10대(5명) 순서의 분포를 보였고, 20~40대가 전체의 83%를 구성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성(54명) > 여성(49명)이었다. 직업별 분포는 직장인(45명) > 학생(28명) > 주부(16명) > 무직(14명) 순이었다. 학력별 분포는 고등(43명) > 중등(26명) > 대학(23명) > 초등(11명) 등의 순이었다.

본 연구의 목표와 직접 관련이 되는 종교 관련 항목들의 경우에는 보다 분명한 응답들이 나왔다. 종교적 열성 정도에 대해서 보통(38명) > 약간 긍정적인 편(26명) > 약간 부정적인 편(22명) > 매우 긍정적인 편(9명) > 매우 부정적인 편(8명)으로 대다수인 70%의 대상자들이 스스로 보통 이상 수준의 종교적 열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는 69명인 67%가 가톨릭이라 답하였고, 10명인 10%가 개신교 신자였으며, 무신론자이거나 불가지론자 등으로 답한 경우가 21명인 20%에 달하였다. 단순히 스스로를 불가지론자라거나 이념적 신앙인이지만, 실천적 신앙인이 아니라는 식의 답은 20대의 경우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유형이 되기에는 빈도가 낮았다.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경우가 46%이며(긍정적이

다: 40명/ 매우 긍정적이다: 8명), 부정적 응답이 29%(부정적이다: 23명/ 매우 부정적이다: 7명)에 비해 높았다. 또한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절대 대다수인 58명(56%)이 긍정적으로(매우 긍정적이다: 5명/ 긍정적이다: 53명; 보통 37명; 부정적이다: 5명/ 매우 부정적이다 3명) 답변하였다. 멕시코 사회는 종교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절대 대다수인 77명(75%)이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마지막 항목으로 본인이 외롭고 힘들 때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을 고르라는 항목에서는 전체 응답 가운데에서 나 자신(24명) > 가족(23명) > 신(21명) > 친구(14명) > 성모(10명) > 예수(7명) 등의 순서로 대답하였다. 종교적 인식과 관련된 항목들만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종교	가톨릭	개신교	무슬림	힌두교	불교	기타(기술택)
	69	10				3
	무교(기술택)	무응답				
	21					
종교적 열성	매우긍정	긍정	보통	약간 부정	매우부정	무응답
	9	26	38	22	8	
사후 믿음	매우긍정	긍정	보통	약간 부정	매우부정	모름/무응답
	8	40	13	23	7	12
삶의 의미	매우긍정	긍정	보통	약간 부정	매우부정	무응답
	5	53	37	5	3	
멕시코의 종교성 인식	매우긍정	긍정	보통	약간 부정	매우부정	무응답
	8	69	22	4		
힘들 때 심리적 의존 대상	성모	예수	신	나 자신	친구	가족
	10	7	21	24	14	23
	지인	없음	무응답			
		4				

종교관련 조사 항목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종교적 삶의 방식과 인식의 태도에 대한 차이점은 종합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으며,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집단 간에 차별성이 거의 없는 평균적인 응답 패턴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예상되었던 멕시코 사회에서 과달루페 성모 신앙에 대한 열성적인 반응은 마

지막 조사 항목에서 의외의 응답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어려울 때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을 고르라는 선택형 항목에서 고작 10명인 9.7%만이 성모를 선택하였으며, 의외로 자신 스스로를 꼽은 경우도 23%인 24명이나 되고, 친구와 가족을 합치면 59%인 61명이 종교적 대상이 아닌 자신 혹은 주변인에게 심리적 의존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멕시코 사회를 종교적이라고 믿으며, 종교적 열성도 있는 편이라고 했던 응답과 얼핏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이다. 과달루페 성모를 포함하여 포괄적 의미에서 성모에 대한 공경과 관심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예상되었던 본 항목에서 성모를 비롯한 종교적 초월성을 의미하는 존재들을 모두 합쳐도 38명인 37%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과연 멕시코인들의 과달루페 성모 신앙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접근에 대한 포괄적 성찰이 필요하며, 특히 심층면접에 의한 심화조사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2) 심층면접 조사

심층면접 조사는 사전에 준비된 질문 항목에 피설문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는 형태로 이뤄졌으며, 녹음을 기반으로 작업이 이뤄졌다. 유효 참가자는 총 74명이었다. 연구문제와 관련된 질문 항목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문제	질문항목
성모 신앙의 유래와 혼종성 관련 인식	과달루페 성모의 유래를 아는가
	과달루페 성모 신앙은 가톨릭 신앙인가
사회통합 관련 인식	멕시코 사회의 통합에 있어서 과달루페 성모는 도움이 되는가
	과달루페 성모 신앙은 멕시코의 국가적 상징이 될 수 있는가
	과달루페 성모 신앙은 멕시코 가톨릭 교회에 도움이 되는가
	과달루페 성모 신앙이 멕시코의 문화적 정체성이 될 수 있는가
성모 신앙의 고유성 관련 인식	과달루페 성모는 특별히 구분되는 성모인가
	과달루페 성모가 다르다면, 왜 다른가

(1) 성모 신앙의 유래와 혼종성 관련 인식

‘과달루페 성모의 유래를 아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49명/74명(66%)이 비교적 정확하게 대답했으며, 15명/74명(20%)이 매우 상세하게 대답했다. “후안 디에고가 떼페약을 거닐던 중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중략] 그가 사제들에게 분명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중략] 했고, 주교는 과달루페 성모를 기념하기 위해 성당을 짓도록 하였다(카를로스, 37세, 직장인(회사), 멕시코시티 거주).”라는 구조의 답변 형식이 가장 많았다. 10명/74명은 무관심하다거나, 거짓이라며 유래도 잘 모른다고 답하였다. “교회와 식민정부가 협력해서 전설을 만든 것일 뿐이다(호세피나, 29세, 대학원생, 멕시코시티 거주)”가 대표적이다. 또한 유래를 알고 있다는 피설문자들 가운데에서도 13명/64명은 전설일 뿐이라거나 역사적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였다. “[전략] 이와 같은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목인 아래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회적 이념일 뿐이다(토마스, 41세, 무직(1년 이상 실직 상태), 멕시코시티 거주). 유래를 알고 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드러낸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모 신앙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래를 모르는 경우는 없었던 점이다.

‘과달루페 성모 신앙은 가톨릭 신앙인가’라는 다소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43명/74명(58%)이 가톨릭 신앙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의 언급에는 특기할 만한 표현이 없었으며, 포괄적 의미에서 이질적 요소들의 특성들조차 가톨릭 신앙 안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대표적 의견으로는 “아즈텍 신앙의 작은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또한 가톨릭 종교에 편입되었으며, 오늘에 이른 것이다(콘셉시온, 51세, 주부, 멕시코시티 거주)”이 두드러진다. 17명/74명(23%)이 또난친을 언급하며 아즈텍 신앙과의 신크레티즘을 지적했다. “과달루페 성모는 또난친을 수용했다(안나, 34세, 직장인, 멕시코시티 거주)”, “또난친과 과달루페 성모는 하나이다(수사나, 47세, 주부, 멕시코시티 거주)” 등의 기술이 대표적이다. 4명/74명(5%)가 결과적으로 모두 허구라고 주장했다. “또난친이나 성모 마리아 모두 허구적 존재이다(리카르도, 27세, 대학원생, 멕시코시티 거주).”라는 적극적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10명/74명(13.5%)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2) 사회통합 관련 인식

‘멕시코 사회의 통합에 있어서 과달루페 성모는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유형으로는 39명/74명(53%)이 멕시코 사회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과달루페 성모 신앙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멕시코인들을 결집시키는 데 큰 의미를 지녀왔으며, 현재도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로베르토, 44세, 직장인(교사), 멕시코시티 거주)”, “과달루페 성모는 멕시코의 상징적 통합을 의미한다(리카르도, 21세, 대학생, 멕시코시티 거주)”, “[과달루페] 성모는 멕시코를 하나로 만들었다(이사벨, 39세, 직장인(간호보조), 멕시코시티 거주)” 등의 답변이 주를 이뤘다. 22명/74명(30%)은 멕시코 사회의 결속력과 과달루페 성모의 존재(혹은 신앙)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답을 내놓았다. “멕시코 사회는 민주주의 정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이뤘고, 그러한 과정이 통합에 도움을 주었다.(루이스, 30세, 직장인(청소용역), 멕시코시티 거주)”라는 유형은 사회통합과 과달루페 성모 신앙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답변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종교가 사회통합에 일정부분은 도움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또한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페레사, 52세, 직장인(학원강사), 멕시코시티 거주)”, “종교는 21세기 환경에서 [사회적] 결속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후안, 23세, 직장인(음식점), 멕시코시티 거주)” 등과 같은 답변들이다. 과달루페 성모 신앙과 사회 통합의 상관성이 낮다는 견해에는 이처럼 다양한 인식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3명/74명(13.5%)은 과달루페 성모 신앙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거나, 사회의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답을 내어 놓아, 질문과 상당부분 거리를 두는 답변을 내놓음으로써 구체적인 견해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과달루페 성모 신앙은 멕시코의 국가적 상징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41명/74명(55%)이 과달루페 성모 신앙이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과달루페 성모는 멕시코의 국가적 상징이다(호세, 33세, 직장인(회사), 멕시코시티 거주)”와 같은 유형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23명/74명(31%)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무관한 편이다(마누엘, 40세, 직장인(보건), 멕시코시티 거주)”과 같은 유형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10명/74명(13.5%)은 비교적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과달루페 성모를 국가적 상징으로 볼 수는 없다. 멕시코는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이다(또니, 30세, 직장인(백화점), 멕시코시티 거주)” 등이 대표적이다.

‘과달루페 성모 신앙은 멕시코 가톨릭 교회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대다수의 견해인 63명/74명(85%)이 긍정적 의견을 내었다. 멕시코 가톨릭 교회가 과달루페 성모 신앙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다. “과달루페 성모가 없는 멕시코 성당은 생각할 수도 없다(미겔, 42세, 직장인(은행), 멕시코시티 거주)”, “성모 신앙의 가장 큰 은혜는 성당이 입고 있다(토마스, 35세, 직장인(보험), 멕시코시티 거주)” 등의 견해가 가장 많았다. 9명/74명(12%)의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는 내용의 견해를 내어놓았으며, 통일된 유형을 보이지 못했다. 흥미로운 점은 19명/74명(26%)이 “멕시코 가톨릭 교회가 본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과달루페 성모 신앙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알베르토, 27세, 대학원생(신학), 멕시코시티 거주)”라는 유형의 견해를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과달루페 성모 신앙이 멕시코의 문화적 정체성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대략적인 인상 중심의 답변이 많았다. 긍정적이라는 견해로는 51명/74명(69%)이 유사한 응답을 내놓았다. “과달루페 성모 신앙은 멕시코의 문화 가운데 대표적 사례의 하나이다(산토스, 32세, 직장인(자동차수리점), 멕시코시티 거주)”라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유일하거나 최고의 문화 정체성을 대변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피조사자들은 몇몇 주요한 문화 정체성의 표본으로 꼽았다. “과달루페 성모 신앙은 대표적인 멕시코의 문화이고 종교이다(마이페, 22세, 대학생, 멕시코시티 거주)”와 같은 유사한 유형도 많았다. 15명/74명(20%)은 “[구태여] 과달루페 성모 신앙이 멕시코 사회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이유는 없다(돌로레스, 34세, 주부, 멕시코시티 거주)”라며 중립적 인식을 드러내었으며, 8명/74명(11%)은 “과달루페 성모 신앙이 멕시코 사회문화를 대표해서는 곤란하다(미첼, 24세, 대학생, 멕시코시티 거주)”는 유형의 답을 내놓았다.

(3) 성모 신앙의 고유성 관련 인식

과달루페 성모를 제외하고도 원주민의 토착신앙 요소가 성모 신앙과 혼합된 형태의 신크레티즘의 사례는 중남미 지역의 경우 드물지 않다는 시각에서 과달루페 성모를 고유한 대상으로 수용하거나, 특별한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과달루페 성모는 특별히 구분되는 성모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39명/74명(53%)는 “과달루페 성모는 특별한 성모이다(라파엘, 44세, 주부, 멕시코시티 거주)”와 같은 적극적인 답을 내놓았다. 이러한 답변들 가운데에는 “다른 성모에 비해 영험하다(아드리아나, 57세, 주부, 멕시코시티 거주)”거나 “가장 많은 신자들이 몰려드는 과달루페 성모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다니엘, 49세, 직장인(공장), 멕시코시티 거주)”라는 유형을 비롯하여 “특별히 친근하다(프란시스코, 30세, 직장인(쇼핑몰), 멕시코시티 거주)”라는 주관적 유형의 답변도 볼 수 있었다. 반면, 31명/74명(42%)은 “과달루페 성모가 특별하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알레한드로, 42세, 직장인(회사), 멕시코시티 거주)”와 “모든 성모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없다(까리나, 63세, 무직(은퇴), 멕시코시티 거주)” 등의 견해를 밝혔다. 나머지 8명/74명(11%)은 특별한 견해를 내지 않았다.

과달루페 성모가 다른 성모와 차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31명 전원은 그 이유를 “교회는 하나이고, 성모는 동일하기 때문이다(실비아, 52세, 주부, 멕시코시티 거주)”라는 유형의 답을 하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항목인 ‘만약 과달루페 성모가 다르다면, 왜 다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달루페 성모가 지닌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마누엘라, 39세, 직장인(관광업), 멕시코시티 거주)”라는 유형의 답변이 23명/39명(59%)으로 가장 많았고, “과달루페 성모의 외모(혹은 피부색)가 다르기 때문이다(마누엘라, 40세, 주부, 멕시코시티 거주)”라는 유형의 답변이 14명/39명(36%)으로 뒤를 이었다. 외형적 특징을 피부색이나 인종과 관련지어, 멕시코의 혼혈성과 관련지어 동질감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의외로 많았던 것이다. “혼혈로서 성모의 모습은 많은 멕시코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고유한 존재이다(그리스토텔, 53세, 직장인(교수), 멕시코시티 거주)”

라는 유형의 응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과달루페 성모는 내게 유일한 성모다(로베르타, 36세, 주부, 멕시코시티 거주)”에서처럼 보듯 과달루페 성모를 개별적으로 다른 존재로 파악하는 경우도 2명/39명(5%)이 있었다. 주목할 것은 이론적으로 성모가 보편적 개념에 기반한 동일한 개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멕시코의 종교문화적 정체성과 ‘의도적으로’ 연관시키려는 대중적 가톨릭의 성격이 나타나는 대목이다.

4. 결론

과달루페 성모 신앙은 역사적 사건이나 전설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성(nowness)을 지닌 유기적 산물이다. 고정된 유형에 머물 수 없는 유기체인 것이다. 식민시대와 독립시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러다임의 틀에서 과달루페 성모 신앙은 해석의 주체에 따라 사회-종교적 의미를 달리 수행해왔다. 과달루페 성모 신앙의 주제는 역사적 기록으로, 종교적 신앙의 기록으로 다양한 판본의 기록물들을 통해 전해오고 있지만, 그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의 증거물이 되기는 어렵다. 기록의 시기와 주체에 따른 내용의 차별성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초자연적 현상을 인간의 도구적 어휘로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형언불가성 lo inefable’과 ‘묘사의 허구성 ficción en argumentar’ 사이의 간격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은 탓이기도 하다(Martínez, 2010: 54-55). 이는 역사 재구성에 의존하는 연구 방식이 지향하는 텍스트 연구가 지닌 한계를 의미한다. 이질적 요소들의 공존(Symbiosis)은 신크레티즘의 시각에서 사회적 통합의 기능에 따라 속도와 주도적 주체 및 대상을 조금씩 달리하며 변화해왔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대 멕시코 사회에서 과달루페 성모 신앙은 여전히 유효한 현상이며, 아즈텍의 종교사회적 잔존 요소들을 포함한 대중적 가톨릭의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현재성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과달루페 성모 신앙의 현상에 대한 현재적 구성원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이다.

과달루페 성모 신앙과 또난친 신앙의 공존과 신크레티즘의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면서, 문제의식으로서 과달루페 성모 신앙이 지닌 현재적 문제의식을

종교적 유사성에 기초한 혼종성의 의미와 사회통합의 현재적 기능, 그리고 성모 신앙의 병치 현상에 집중할 충분한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TAI 검사의 ‘멕시코 인종’ 항목에서 내재적 편견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는 피조사자들만을 대상으로 기초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가 설정하였던 연구문제와 관련된 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종합적 분석 결과, 과달루페 성모의 유래와 관련된 심층면접을 통해 정보 공유의 높은 비율이 역사의 현재적 의미 수용과 비례관계에 있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와 종교의 복합적 인식에 있어서 ‘종교적 믿음 > 역사적 진실 > 역사적 허구 > 종교적 왜곡’의 비율적 패턴을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피조사자들 스스로 ‘신크레티즘’이나 ‘결합’, ‘혼종’ 등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또란친 이외에 아즈텍의 전통 신앙의 구체적 요소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보 공유 측면이라기보다는 심정적 측면에서 아즈텍 신앙이 가톨릭에 수용되고 혼합되었다는 인식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을 의미한다. ‘과달루페 성모 신앙이 가톨릭 신앙’이라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역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아즈텍 신앙의 요소들이 가톨릭에 수용되어 통합된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우세했는데, 이는 신크레티즘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신앙의 틀에서 과달루페 성모 신앙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멕시코 전통 및 역사와 관련되는 고유성에 대한 연대감이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역사적 왜곡에 대한 지적과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달루페 성모 신앙이 멕시코 사회를 통합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했음을 부인하는 인식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비록 과달루페 성모 신앙이 식민시대의 통치 수단과 복음화의 입장에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왜곡의 순간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독립운동 시기 이후에는 국가와 사회적 통합의 개념으로서 긍정적 이미지를 지녀왔다는 평가는 사회학자들의 견해와 그 궤를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절대 대다수가 국가적 상징이며,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 최대 수혜자는 멕시코 가톨릭 교회라고 평가하고 있다. 멕시코 가톨릭 교회가 과달루페 성모 신앙의 현상에 의존하는 경향을 줄여야 교회의 사회적 기능이 바로 선다는 소수의

구체적인 견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대상이다. 멕시코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과달루페 성모 신앙 현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평가한다는 견해가 월등했다. 국가적 이미지와 상징으로 수용해서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공론화하기에는 멕시코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적 공감대의 폭이 매우 넓은 것이다.

기초조사 항목에서 정신적인 의지가 되는 존재에 대해 성모를 비롯하여 예수와 신 등 초월적 존재를 선택한 답변이 예상보다 낮은 비율이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 친구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던 사실과 비교하자면, 과달루페 성모 신앙에 대한 높은 사회문화적 공감대와 연대의식이 일상적 삶에 있어서 개인의 의식과 사회적 삶의 형태에 그 구제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남기에 충분하다.

과달루페 성모 신앙처럼 토착 종교적 요소가 외래적 요소와 혼합적 양식으로 결합된 신크레티즘은 중남미에서는 드물지 않은 사례이다. 성모 신앙의 병치 현상인 ‘Yuxtaposicion’과 관련하여, 42%의 멕시코인들이 과달루페 성모를 특별한 존재로서 구분하고 차별하지 않고 있었으며, 성모는 어느 곳에서도 동일하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53%는 역사적 배경과 유래를 이유로 과달루페 성모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달루페의 성모가 다른 지역의 성모와 구분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멕시코의 이미지로 긍정적이라고 수용하는 태도는 멕시코 가톨릭 신앙이 멕시코의 사회문화적 고유성으로 정착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구분이 되는 이유를 꼽는 항목에서, 사회적 의미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이유(59%)만큼이나 성모의 피부색에서 드러나는 문화혼종과 혼혈 문화에 대한 자기 인식의 태도(36%)는 현대 멕시코인들의 종교문화적 심상과 사회문화적 의식의 특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단초라고 할 수 있다.

과달루페 성모 신앙은 멕시코의 역사와 전통의 다양한 요소가 멕시코의 고유성이라는 이미지와 결합하여, 사회적 통합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온 대중적 가톨릭의 사례이며, 신앙의 대상이지만,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의식 분석의 결과와 해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달루페 성모 신앙은 현재성의 의미에서 다변화된 가치와 사고의 복

합적 요소들이 사회적 다양성의 만남이라는 유기적 결합 방식에 의해 변형될 수 있는 생성물이다.

❖ 참 고 문 헌

- 김세건, “성모 과달루페(la virgen de Guadalupe) 신앙의 형성과 그 의미: ‘우리는 성모 과달루페의 신봉자들이다’(Somos los guadalupanos)”, 라틴아메리카 연구, 13(1), 2000.
- Baird, Robert D., *Category Formation and the History of Religions*, Berlin and New York, 1991.
- Connors, Marie A., *La Virgen de Guadalupe: una mujer de todos los tiempos*, Master's Theses, San Jose State University. 1992.
- De Cárcer y Disdier, Mariano, *Apuntes para la Historia de la Transculturación Indoespañola*.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1995.
- Hoppe, Jennifer, “El sincretismo: Religious Sycrctism in Latin America”, *Anthropology/Religion* 142, April, 2003.
- Lupo, Alessandro, “Síntesis controvertidas. Consideraciones en torno a los límites del concepto de sincretismo”, *Revista de Antropología Social*, no. 5. UCM, 1996.
- Madsen, William, *Christo-Paganism: A Study of Mexican Religious Sycrctism*. New Orleans: Tulane University, 1957.
- Martín, Eloisa, “Aparecida, Guadalupe y Luján como símbolos religiosos y nacionales: un análisis comparativo”, *VIII Jornadas sobre Alternativas Religiosas na América Latina*, São Paulo, 22 a 25 de setembro de 1998.
- Martínez, Sara, “Nuestra Señora de Guadalupe. Mito-narración-argumentación”. *Decires, Revista del Centro de Enseñanza para Extranjeros*. vol. 12, no. 15. 2010.
- Morett, Laura, “Guadalupe, Mother of Mexican Feminism”, *Washington College*

Review, vol. 15, 2007.

Olavarria, María Eugenia, “Creatividad y sincretismo en un ritual yaqui”, *Alteridades*, 1995, 5(9).

Shaw, R., y Stewart, Ch., “Introduction: problematizing syncretism”, en Ch. Stewart y R. Shaw (eds.), *Syncretism/Anti-Syncretism. The Politics of Religious Synthesis*, pp. 1-26, London, Routledge, 1994.

Tyrakowsky, Konrad, “La villa de Guadalupe: centro religioso y nacional.” en: Giuriati y Masferrer Kan, coords.: NO TEMAS... YO SOY TU MADRE. Estudios socioantropológicos de los peregrinos a la Basílica. Centro Ricerche Socio Religiose. Plaza y Valdés Editores, México.(1998)

인터넷 자료:

Armillas Vicente, José Antonio, “Evangelización y sincretismo religioso en México(Siglo XVI)”.

2007(<http://ifc.dpz.es/recursos/publicaciones/23/18/1.Armillas.pdf>).

Hartney, Christopher, “Syncretism and the End of Religion(s)”, 2001.

<http://escholarship.usyd.edu.au/journals/index.php/SSR/article/view/231/210>

Pastor, Marina Fe, “Sandra Cisneros: Malintzin, Guadalupe y anexas”, OMNIA (<http://cep.posgrado.unam.mx/servicios/productos/omnia/anteriores/41/11.pdf>).

❖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faith in St. Mary of Guadalupe

Chong-Wook PARK

The faith in St. Mary of Guadalupe is supposed to be concerned not as reminiscence of historical events or legends, but organic product of having nowness. It's an organism that can not be stay in a fixed type. From the perspectives of syncretism the coexistence of heterogeneous elements (Symbiosis) between Catholicism and Aztec's religion has been changed constantly depending on the necessity and function of the subjects who have dreamed the social integration.

It's fundamentally clear that the faith in St. Mary of Guadalupe is still valid phenomenon in the modern Mexican society and that the faith is an aspect of popular catholicism which includes the remaining elements of the religion of the Aztecs. This is to understand the meanings of the perception of the contemporary mexicans on the phenomenon for the faith in St. Mary of Guadalupe. Through in-depth interviews, it is revealed that a high rate of sharing of the information does not mean the proportional acceptance of the history. It's a interesting point to see that the mexicans consider the faith in St. Mary of Guadalupe catholic belief, having a feeling of strong tie between themselves and the Aztec's religion. In spite of the historical conflicts over the veracity of St. Mary of Gaudalupe, the majority of the contemporary mexicans consider the faith positive element to consolidate the nationality and socio-cultural identity of México against the socio-political and ethnic conflicts in the Mexican Society.

Key Words

과달루페 성모 신앙, 토난친, 신크레티즘, 멕시코 사회, 멕시코 종교, 아즈텍 종교
Faith in St. Mary of Guadalupe, Tonantzín, Syncretism, Mexican Society,
Mexican Religion, Aztec's Religion

논문접수일: 2011. 11. 09.

심사완료일: 2011. 12. 05.

게재확정일: 2011. 12. 10.